

■ 휴가철 노인 해외여행

“만성질환자 의사와 상의하고 떠나야”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해외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여행가능 여부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노인들의 경우 모처럼 해외여행을 나섰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함께 가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낯선 여행지에서 외국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여행길이 '고행길'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행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떠날 경우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여행을 떠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행시간 1~5시간 안팎 여행지로

단체관광이 안전... 여행자 보험 필수

여행지 선택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에 대처해줄 수 있는 가이드가 동반하는 지 반드시 살펴야한다. 어르신들은 비행기나 차 시간에 늦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복잡한 통관절차는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어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단체관광이 좋다고 한다.

시간 이상 비행하거나, 5시간 이상 시차가 생기는 여행지를 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노인의 경우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체력을 지니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실버 해외여행 체크 포인트

- 비행 시간과 시차를 고려한다.
휴양보다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각종 팀이나 옵션이 경비에 포함된 상품을 선택한다.
쇼핑 횟수를 제한하는 여행을 고른다.
가이드가 함께 하는 여행상품을 고른다.
종합병원에서 예방 접종한다.
지병이 있으면 여행 전 의사와 상담한다.

꼼꼼히 살펴본 후 80% 이상 관광일정이 잡혀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많이 걷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공되는 교통수단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여행지에서 목격될 호텔 환경과 식사 내용도 점검해야 한다. 비행 도중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는 지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처음 여행하는 노인의 경우 입·출국 수속 등에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동행하는 여행상품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 노인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행지를 선택할 때 현지 기온과 날씨를 감안해야 한다. 고온 지역에서는 열사병에 노출되기 쉽고, 온도차가

월 40만→68만 원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소득 기준 크게 올랐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선정하는 기준 소득이 월 68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노령연금 선정 기준 소득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68만원으로, 노인 부부는 월 합산 64만원에서 108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약 360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입안에 고된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천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6천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있을 때는 재산 공시가격의 5%를 연소득으로 간주해 합산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선정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 사는 노인은 매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13만4000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버라운지

권성욱



실버산업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민간 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 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인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실버산업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개발되는 특성을 갖게된다. 실버산업은 노령 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변화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노인의 경제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도 실버산업의 태동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버산업은 주거 관련 산업, 보건의료 사업, 여가 활동사업, 금융관련사업, 생활관련사업, 복지용품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주거 관련 사업은 유료 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노인아파트, 노인휴양시설,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및 지자체의 실버산업 진흥책과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지역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업의 사회봉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세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버산업의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버산업의 주 소비층인 노인들의 적

실버산업 국가차원 관리 시급하다

실버타운 등이 있고, 보건의료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치매전문병원, 노인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인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여가 부문은 관광, 레포츠, 교육 활동 지원서비스 등이 있고, 금융 관련 사업으로는 은행의 실버상품, 노후생활연금 신탁, 보험상품, 부동산신탁 등이 있다.

생활 관련 사업은 재가복지 서비스사업(가정방문 봉사원 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가정방문간호사업), 노인용 의류, 화장품, 건강식 및 치료식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인용 기저귀, 변기, 침구, 휠체어 등을 제공하는 복지 용구 사업이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버산업과 관련된 국가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됐지만 실버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적인 소비자 의식도 필요하다. 기업과 소비자는 톨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표출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실버산업은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고 기업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공통적 요구를 해결해준다는 사회적 책임감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의 참여가 요청된다. 이런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실버산업의 시장은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또 사회 복지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적인 실버산업의 모형이 수립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실버산업의 시장은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또 사회 복지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적인 실버산업의 모형이 수립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실버산업의 시장은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또 사회 복지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적인 실버산업의 모형이 수립될 것이다.

<충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성욱>

가 있을 경우 식사시간을 놓쳐 저혈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갖고 가는 것도 좋다. 탈수 예방을 위해 휴대용 물통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소 복용하는 약을 잊어버리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약제를 챙겨야 한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야 한다. 동

남아시아 등지로 여행갈 때는 독감이나 모기 기로 인한 뎅기열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독감은 떠나기 2주전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뎅기열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뎅기열이 발병하는 지역에 갈 경우 되도록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옷과 바지를 준비하는 게 좋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7.9 Grade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Course) by '무등고시학원' (Mudeung Gosihakwon). It lists various exam types like '행정무세원' and '경찰공무원'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Advertisement fo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It features '신로' (Shinro) and '새롬' (Saerom) brands, offering courses for public brokers and real estate agents. It includes exam dates and contact numbers.

Advertisement for '동아외국어학원' (Donga Foreign Language Academy). It promotes '파격! 破格! 획기적인 여름방학 외국어 공부!' (Breakthrough! Revolutionary Summer Vacation Foreign Language Study!) with a focus on TOEIC and English speaking courses. It lists various course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생활안내' (Life Guide) by '새롬행정고시학원' (Saerom Administrative Exam Academy). It offers a '광고접수 및 문의' (Advertisement Acceptance and Inquiries) service. The contact information is 227-9600 and 227-9500.